



즉시 사용

담당

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

심의관 정홍근, 사무관 김동빈
(044-200-2132, 2134)

이낙연 국무총리, 아사드 오만 대외관계 부총리 양자회담(7.24)

-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만 공식방문 첫 행사로 7.24(화) 아사드 오만 대외관계 부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졌으며, 아사드 부총리 초청 공식오찬에 참석했습니다. 이 총리는 한국기업이 에너지, 철도, 스마트시티,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오만 정부측의 지원을 요청하며 경제외교 행보를 이어갔습니다.
- 이번 회담에서 이 총리는 한-오만 관계가 에너지분야를 토대로 꾸준하게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, 앞으로도 오만의 국가개발전략인 '비전 2020'과 향후의 '비전 2040'을 추진하는 과정에 기꺼이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. 특히, 이 총리는 두قم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석유화학, 수전력, 철도, 태양광, 스마트시티, 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한국기업이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.
 - * 오만은 중장기 국가개발전략인 '비전 2020(1996-2020)'을 통해 2020년까지 1인당 실질 GNP 증가를 목표로 △인력개발, △산업다변화, △민간부문 육성 등 추진 중
 - * 두قم(Duqm) 경제특구 개발 프로젝트는 오만의 차세대 국가성장 동력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중이며, 동 프로젝트에 △석유화학단지 조성 프로젝트, △수·전력 설비공사, △전국 전력망 통합연결 프로젝트, △국가 철도망 건설 공사 등이 포함될 예정
- 이에 대해 아사드 부총리는 지금까지 한국기업과 일하는데 어떠한 문제도 없었으며, 한국의 세계적 위상, 경쟁력, 생산성 등을 감안할 때 한국과의 협력이 자랑스러우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서, 카부스 국왕도 많은 사업 수행에서 한국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.

- 이 외에도 이 총리와 아싸드 부총리는 보건의료, 수산협력, 고등교육 및 연구, 물류 등 분야에서 MOU 체결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
- 한편, 이 총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오만정부가 지지해준 것과, 청해부대가 해적퇴치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오만정부가 지원해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, 아싸드 부총리는 오만이 한국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러한 도움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.
- 이후, 이 총리는 오만 주재 동포 대표들과의 만찬 간담회를 갖고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는 한편, 비즈니스, 교육·문화, 스포츠, 치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한-오만 양국 친선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사회를 평가하고,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습니다.